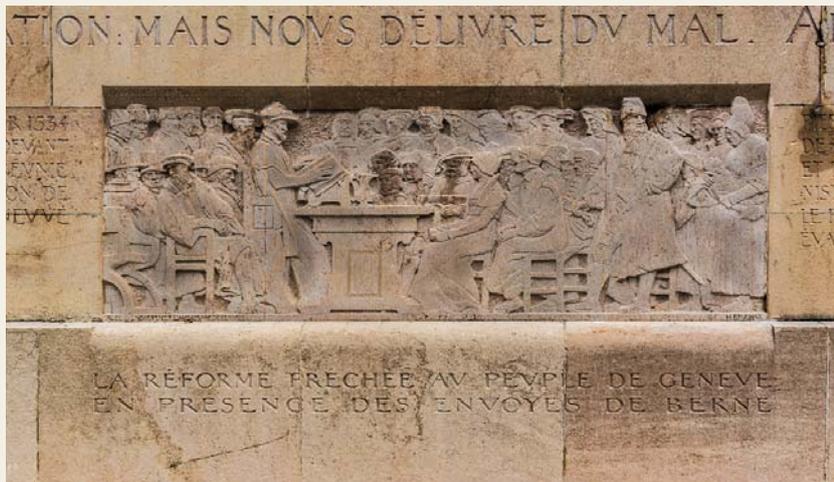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김승욱 (발행인)



스페인과 영국 등에서 절대주의 왕권이 확립되면서 점차 로마 교황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각 제후에게서 거두는 십일조가 줄어들게 되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1515년부터 도미니쿠스회의 요한네스 폰 테첼 수사는 브란덴부르크 추기경의 지시에 따라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 판매대금은 로마의 베드로성당의 준공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이에 회의감을 느끼고 테첼의 설교와 장삿속을 비난하다가,

1517년 10월 31일에 면죄부 남용에 대항하는 95개조 비난문을 자신이 교수로 있는 비텐베르크(Wittenberg)성당의 벽에 붙였습니다. 당시 확산된 인쇄기술로 인해서 루터의 주장은 전 독일로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오늘날까지 종교개혁 시작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개신교는 이를 기념하여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주간으로 지켜왔는데, 특히 올해는 5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므로, 독일은 올해 10월 31일을 이례적으로 국가공휴일로 정했습니

다.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독일로 몰려들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열리는 전시회, 2500명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독일 여러 지역에서 연주하는 팝 오라토리오 루터(Pop-Oratorium Luther) 순회공연, 개신교와 천주교회의 화해 예배(Healing of Memories), 각 지역의 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루터효과’ 등 종교개혁 만국 박람회, 종교개혁이 각 분야에 미친 다양한 영향에 대한 각종 학술대회와 국제회의 등 많은 기념행사들이 열립니다.

한국 교계는 이미 2011년에 ‘종교개혁500주년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종교개혁정신에 따라 한국교회를 어떻게 갱신할 것인가를 논의하며 다양한 행사를 벌여왔습니다. 저희 <월드뷰>도 지난 2년 동안 종교개혁의 의미와 한국 교회 시사점을 중심 주제로 발간을 해 왔습니다. 커버 스토리로 “실천적 종교 개혁자 울리히 츠빙글리(2016년 10월호, 통권 196호)”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혁자, 존 낙스(2016년 4월호, 통권 190호),” “보헤미아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2017년 1월호, 통권 199호)” 등을 조명했습니다. 이제 500주년 해당 월을 맞아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커버스토리로 선정하여 기념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의 영향력

루터는 1505년에 낙뇌사건으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1512년에 비텐베르크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성경신학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연구를 통해 깨닫고 그의

십자가 신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신대 이상규(교회사)교수는 ‘역사로 본 루터의 종교개혁과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지만, 바울 사후 1세기가 되지 않아서, 이미 초대교회 교부들조차도 도덕주의로 치우쳐 은혜의 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후 로마가톨릭교회의 신학은 바울 사후 거의 1500년 동안 십자가의 복음이 무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루터에 의해서 바울의 십자가복음을 재발견하고,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위대한 사건입니다. 김철홍 장신대(신약학) 교수는 본 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루터 사후 루터파교회와 아르메니아니즘에 의해서 로마가톨릭쪽으로 가게 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행위를 통한 구원과 믿음을 통한 구원을 연결해서 서로 모순되지 않게 설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종교개혁 500 주년을 기념하면서 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고, 교회 내부에서도 다시 가톨릭쪽으로 회귀한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목사와 평신도를 구분하고, 종교개혁 정신에 맞지 않는 용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합신의 이승구(조직신학) 교수로부터 구체적인 개혁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가 구조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신자들 각자가 루터와 같이 맡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듯이 생

활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미래연구원의 최병규(신학박사, 교회사)원장으로부터 루터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종교개혁이 서구 사회에 미친 영향

루터의 종교개혁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대성(modernity)의 시작이 종교개혁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대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개인의 발견이 근대성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대부분 인정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에는 개인주의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동양에서는 개인주의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고, 서양에서는 기원전 4세기의 디오게네스에서 찾는 이들도 있지만, 막스 베버(Max Weber)나 에밀 뒤르켄(Emil Durkheim) 등은 유럽 개인주의의 뿌리를 예수로부터 찾습니다. 구원은 집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로마가톨릭은 교회의 조직에 의해서 다시 이 개인을 속박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신학사상은 다시 인간 개인의 내면의 중요성을 복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의해서 개인이 다시 발견되었다고 하지요. 이는 후에 서구적 자아의 원천이 됩니다.

루터 이전에도 영국의 종교 개혁자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1384)나 보헤미아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Jan Hus, 1372 ~ 1415) 등이 있었지만 특히 루터 시대의 개혁사상이 널리 퍼질 수 있었

던 것은 인쇄술의 보급 덕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도를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듯이 구텐베르크(Gutenberg, 1398년경 ~ 1468)의 금속활자로 인해서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널리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의 금속활자가 구텐베르크의 것보다 200년을 앞섰다고 자랑을 하지만, 그 영향력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음과 자음 몇 개의 활자를 갖추면 모든 글자를 다 찍을 수 있는 음소문자와 달리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금속으로 그 많은 글자를 인쇄할 경우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고, 한지에 금속활자로 인쇄하는 것은 종이가 찢어지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실은 모든 인쇄를 독점했기 때문에 인쇄된 책이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독일에서는 인쇄기가 발명된 것은 1450년이지만, 이미 루터시대에 약 3,000개가 넘는 인쇄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래서 루터의 95개조 논제는 몇 주 만에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루터의 독일어가 오늘날 표준 독일어로 발전했습니다. 중세 천년동안 오늘의 독일지역은 약 300개의 영방으로 나뉘어있었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루터 이전에도 쾰른 등 몇 지역에서 사용되는 지역언어로 번역된 독일어 성경이 있었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독일어가 너무 초라해서 성경의 깊은 뜻을 전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성경의 보급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적합하고, 독일인이 읽기에도 적당한 독일어를 찾아내기로 결심하고, 11주 만에 찾아냈습니다. 비텐베르크의 인쇄공 멜히오르 로터가 2교대로 인쇄

해서 마침내 1522년에 라이프치히 도서박람회에 루터가 번역한 신약성경이 출품되어 전역으로 배포되었습니다. 배포 즉시 매진되었고, 일 년이 되지 않아 12판이 출간되었고, 해적판도 50개가 넘었습니다. 루터는 구약성경의 번역에도 착수해서 1532년에 성경 전체가 독일어로 번역 출간되었으며, 루터의 독일어가 오늘날 표준독일어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는 노래 부르기 위한 독일어도 만들어 찬송가의 전통을 시작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도 루터가 만든 찬송가 중에 가장 널리 사랑받는 찬송가입니다. 이렇게 인쇄술의 보급 등으로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은 급속히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었고, 이는 개인을 가톨릭 교회의 위계질서 속에서 구해서 서구 중심으로 근대사회가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동양의 거대제국에 비해서 연약한 분권사회였던 서구가 전 지구에서 가장 선진화된 지역으로 발전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은 근대성의 출발이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적 경제성장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루터보다 약 3세기 후의 인물인 막스 베버(Max Weber, 1864 ~ 1920)는 종교개혁 당시 부유한 상인들 중에 신교를 선택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250년 동안 유럽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구교 국가들의 경제성장률보다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신교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훨씬 빠르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1905)』에서 막스 베버는 “직업적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정신적 태도” 즉 오늘날의 자본주의 정신이 프로테

스탄티즘의 경제윤리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베버명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루터의 종교개혁은 개신교 선교사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19년 4월 11일에 공포된 ‘대한민국임시정부헌장’의 선서문에서 기독교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인 박은영 변호사의 글을 통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 개신교 국가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국가들에 비해서 빠른 경제성장을 보였듯이, 개신교가 놀랍게 성장한 한국의 경제발전도 역시 개신교 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의 글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글 | 김승욱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받고,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제사학회 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등을 하고 있다.